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D대학 중심)

이재도*

A Study on the Academic Dropout of College Students

Lee Jae Do*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대한 현황과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서 D대학의 2001년부터 2005년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정원 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을 제외한 14,2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보다, 기타계열의 고교 출신자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중도탈락률이 높게 나타났다.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미복학(40.16%)으로 인한 중도탈락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등록(32.98%), 자퇴(26.05%), 학사제적(0.81%)으로 인한 중도탈락 순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중심경향 값에 따른 분포를 보면 학생부 성적과 결석일수는 정적편포이며 대학 성적은 부적편포로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일부이고 대부분 높은 점수가 집중된 경향임을 나타내었다. 표준편차를 보면 학업지속자 보다 중도탈락자의 성적이 크게 나타나 비교적 학업지속자의 성적이 비슷한 것으로 보여 학생부성적과 결석일수 모두가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부성적이 낮을수록, 결석일수가 많을수록 중도탈락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대학 1학년1학기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성적이 낮을수록 중도탈락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고, 1학년 전체 성적이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다음이 1-2학기학점, 1-1학기 성적, 1-2학기성적, 그리고 1-1학기 학점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항목에서는 수업년한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이 성별이 미치며 나머지 항목들은 영향의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and causes for the dropouts of college based on the survey conducted among 14,210 freshmen attending D College, other than the supernumerary special selection, from 2001 through 2005.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in all items of general characteristics. The dropout rate of women, generally selected and general highschool graduated were higher than for men, specially selected and special high school graduated, respectively. The most dropouts were due to Not Return (40.16%), followed by Unenrolled (32.98%), Voluntary Leave (26.05%) and Expelled (0.81%) in order. In the distribution of the central tendency values measured from the entire subjects, the high school records and the days of absence showed a positive skewness, while the college records showed a negative skewness with the data mostly around a higher grade. The standard deviation indicating that the dropouts got the scores higher than those of the continuing students demonstrated that there was relatively insignificant difference in scores between two groups. It was demonstrated that both the high school records and the days of absence affected the dropout. The lower the high school records were, and the more the days of absence were, the more influence both items had on the dropout. The influence degree of each item was similar. Lower the scores were in terms other than the first term in the freshmen year, the more influence it had on the dropout. The most dropouts were influenced by the scores of the freshmen year, followed by the credits of the second term, the scores of the first term, the scores of the second term, and the credits of the first term in the freshmen year.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 items, the most dropouts were influenced by the course of study, followed by the gender. The effect of other items was insignificant.

Keywords: academic dropout

※ 접수일: 2008.08.19, 심사완료일: 2008.11.24

* 대구보건대학 행정전산과

I. 서 론

최근 몇 년간 출생률의 하락으로 청소년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대학 입학자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2005) 자료를 보면 연도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수가 2009년에서 2013년 까지 60만 명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4년 이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2010년 66만 명을 정점으로 2014년 58만5천명을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46만6천명, 2020년 이후는 40만 명으로 낮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1-4].

이미 많은 지방 대학에서는 정원 충원률이 70% 대 수준으로 낮아진 대학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10]. 이러한 입학자원의 감소로 인한 재학생 수 감소는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졸업 후의 취업과 연계되어 악 순환이 될 수도 있는 실정이다.

대학에서는 입학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경쟁력강화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에 입학한 재학생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질적인 향상은 재학생의 중도탈락을 사전에 방지하여 재학생의 재학률을 높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유,초,중등 학교의 학업중단률은 1970년에 중학교 2.7%, 고등학교 3.7%에서 2005년에 각각 0.8%, 1.3%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대학의 경우는 매년 중도탈락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의 중도탈락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5],[10],[11]}.

선행 연구자들의 중도탈락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Tinto(1975)가 대학 중도 탈락에 관한 모형을 제시했다^[11-13]. Tinto에 의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목표에 대한 헌신과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헌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헌신은 각자의 대학 입학 전의 특성들(사회적지위, 성별, 인종, 자아개념, 고교성적, 학업능력, 고교의 특별활동)과 재학 중인 대학의 사회적, 학문적 특성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14].

본 연구에서는 D대학의 2001년부터 2005년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의 현재 제적 여부를 이용하여 중도 탈락한 학생과 학업지속 학생사이의 관계와 제적에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한다.

입학 전의 변인으로 고등학교 학생부성적과 고교

재학 중의 결석일수, 대학 재학 중의 변인으로는 1학년 성적(1학년1학기, 1학년2학기, 1학년전체성적), 그리고 일반변인으로는 성별, 입학전형, 학과·계열, 출신고교, 출신지역, 수업년한, 입학구분을 이용하였다.

II. 연구 및 분석 방법

2. 연구대상 및 시기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D대학의 교무지원처의 도움으로 2001년부터 2005년에 입학한 학생 15,8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중에서 정원의 전형(산업체 위탁, 대학졸업자, 농어촌, 외국인전형) 입학자를 제외한 14,210명을 순수한 통계자료로 하여 2007년 12월 현재 학업여부(학업지속, 중도탈락)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항목은 성별, 입학전형, 학과계열, 출신고등학교계열, 출신지역, 수업년한, 입학구분으로 구분하였다. 입학전형 항목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였으며, 학과계열 항목은 D대학 소속 학과 중심으로 보건, 간호계열, 공업계열, 사회실무계열, 예·체능계열로 구분하였으며, 출신고등학교계열 항목은 일반계고등학교와 기타계열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출신지역 항목은 대상자의 고등학교 소재 지역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부산, 울산광역시 포함),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입학구분 항목은 1년 이상 재수한 학생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자료 14,210명 중 여학생(56.90%)이 남학생(43.10%)보다 조금 많았으며 대학의 특성상 일반전형(70.18%) 입학자, 보건계열(69.98%) 학생과 대구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68.88%)가 많았다. 학제 구분으로는 2년제(52.34%), 3년제(47.66%)학생이 비슷한 분포이며 재수한 학생(18.04%)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81.96%)이 많았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항 목	구 분	빈 도(%)
성 별	남 자	6,124(43.10)
	여 자	8,086(56.90)
입학전형	일반전형	9,972(70.18)
	특별전형	4,238(29.82)
학과계열	보건계열	9,944(69.98)
	간호계열	400(2.81)
	공업계열	1,394(9.81)
	사회실무계열	1,350(9.50)
출신고교	예·체능계열	1,122(7.90)
	일반계고교	10,063(70.82)
출신지역	기타계고교	4,147(29.18)
	대 구 시	9,788(68.88)
	경 북	2,410(16.96)
	경남(부산,울산)	1,242(8.72)
수업년한	기타지역	770(5.42)
	2 년제	7,438(52.34)
입학구분	3 년제	6,772(47.66)
	일 반	11,646(81.96)
계	재 수	2,564(18.04)
	-	14,210(100)

2.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빈도분석이나 교차분석에서는 성별, 입학전형, 학과계열, 출신 고등학교 계열, 출신지역, 수업년한, 입학구분의 항목을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로는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종속변수인 학업 지속자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 졸업한 학생, 휴학한 학생이대상이며, 중도탈락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된 학생, 학사 제적된 학생, 자퇴한 학생으로 하였다.

중도탈락의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표 2>와 같이 종속변수는 앞의 분석과 같이 학업지속과 중도탈락으로 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3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고등학교 성적과 관련된 내신성적과 고등학교 재학 중 결석일수를 독립변수로 한 경우와 대학 재학 중의 성적을 독립변수로 한 경우 그리고 위에서 사용된 일반항목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요인 분석하였다.

대학성적은 1학년 전체 성적과 이수학점으로 정의하고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성적과 학점을 하위변인으로 하여 더욱 자세한 분석을 하였다. 대학성적은 전 과목을 대상으로 한 평균 평점(GPA)을 이용하였으며, 고등학교의 학생부성적 은 대상자들의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전 과목 석차백분율을 이용하였다. D 대학에서는 전과목 석차백분율을 1 등급에서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여 성적을 계산하였으며, 이 논문에서는 등급을 사용하지 않고 과목별 석차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표 2. 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

종속변수	학업지속자	재학, 졸업, 휴학한 학생
	중도탈락자	미등록, 미복학, 학사제적, 자퇴한 학생
고등학교 성적	학생부성적	학생부성적=100-고교 성적백분율
	결석일수	
독립변수	1학년 1학기성적	1학년 1학기성적
		1학년 1학기학점
	1학년 2학기성적	1학년 2학기성적
		1학년 2학기학점
	1학년 평균성적	1학년 평균성적
		1학년 평균학점
일반특성	성별	남자, 여자
	입학전형	일반전형, 특별전형
	학과계열	보건계열,간호계열, 공업계열,사회실무계열, 예·체능계열
	출신고교	일반계고교,기타계고교
	출신지역	대구, 경북, 경남(부산, 울산), 기타지역
	수업년한	2년제,3년제
	입학구분	일반, 재수

과목별 석차백분율은 '(과목석차+학년별 학생 수)×100' 으로 계산 한 값으로서 석차백분율이 적을수록 우수한 학생점수가 된다. 다른 변인들과의 정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성적은 '(100 - 전과목 석차백분율)'으로 변환하여 높은 값이 우수한 성적이 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은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AS'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량을 이용하여 자료의 분포를 분석하였고, 항목별로 교차분석을 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으며 이때 유의성 검정은 χ^2 -test 를 이용하여 p<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중도탈락에 대한 요인분석

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3. 학업지속자와 중도탈락자의 빈도분석

항목별로 학업지속자와 중도탈락에 대한 분석은 일반특성의 항목에 따른 빈도분석과 중도탈락자에 대한 중도탈락 사유별 빈도분석을 하였다.

3.1 학업지속 및 중도탈락자 현황

일반특성 항목에 따른 빈도분석은 표 3.과 같이 2001년부터 2005년 입학한 학생 전체 14,21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도탈락률은 13.91%으로 높은 편이다. 대학들의 중도탈락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대책을 위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성별, 입학전형, 학과계열, 출신고교계열, 출신지역, 수업년한, 입학구분의 모든 항목에서 학업지속과 중도탈락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 ($p < 0.001$)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보다, 기타계열의 고교 출신자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중도탈락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구시 지역 출신자, 2년제 학생, 재수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중도탈락률이 높았으며 특히 예·체능계열의 학과의 중도탈락률(29.14%)이 상대적으로 다음 계열 학과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 항목별 학업지속 및 중도탈락자현황

구 분		중도탈락	학업지속	계	χ^2
성별	남 자	1156 (18.88)	4968 (81.12)	6124 (43.10)	221.40***
	여 자	821 (10.15)	7265 (89.85)	8086 (56.90)	
입학전형	일반전형	1272 (12.76)	8700 (87.24)	9972 (70.18)	37.37***
	특별전형	705 (16.64)	3533 (83.36)	4238 (29.82)	

구 분		중도탈락	학업지속	계	χ^2
학과계열	보건계열	1136 (11.42)	8808 (88.58)	9944 (69.98)	316.09***
	간호계열	29 (7.25)	371 (92.75)	400 (2.81)	
	공업계열	244 (17.50)	1150 (82.50)	1394 (9.81)	
	사회실무계열	241 (17.85)	1109 (82.15)	1350 (9.50)	
	예·체능계열	327 (29.14)	795 (70.86)	1122 (7.90)	
출신고교	일반계고교	1163 (11.56)	8900 (88.44)	10063 (70.82)	159.74***
	기타계고교	814 (19.63)	3333 (80.37)	4147 (29.18)	
출신지역	대구시	1520 (15.53)	8268 (84.47)	9788 (68.88)	74.20***
	경북	266 (11.04)	2144 (88.96)	2410 (16.96)	
	경남(부산,울산)	104 (8.37)	1138 (91.63)	1242 (8.74)	
	기타지역	87 (11.30)	683 (88.70)	770 (5.42)	
수업년한	2년제	1417 (19.05)	6021 (80.95)	7438 (52.34)	344.02***
	3년제	560 (8.27)	6212 (91.73)	6772 (47.66)	
입학구분	일반	1547 (13.28)	10099 (86.72)	11646 (81.96)	21.34***
	재수	430 (16.77)	2134 (83.23)	2564 (18.04)	
계		1977 (13.91)	12233 (86.09)	14210 (100)	

*** $p < 0.001$

3.2 사유별 중도탈락자 현황

일반특성에 따른 중도탈락의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성별($p < 0.001$), 입학전형($p < 0.01$), 학과계열($p < 0.001$), 출신고교계열($p < 0.001$), 출신지역($p < 0.01$), 수업년한($p < 0.001$), 입학구분($p < 0.05$) 등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미복학(40.16%)으로 인한 중도탈락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등록(32.98%), 자퇴(26.05%), 학사제적(0.81%)으로 인한 중도탈락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미복학(45.42%)으로 인한 중도탈락이 가장 많았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미등록(40.07%)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학과계열에서는 보건계(38.03%), 공업계(48.77%), 예·체능계열(45.87%)의 경우는 미복학이 가장 많았으며 반면에 간호계열에서는 자퇴(41.38%)의 경우가 사회실무계열에

서는 미등록(45.64%)으로 인한 중도탈락이 가장 많았다.

출신지역이 D대학과 멀리 떨어질 수(43.68%), 그리고 3년제 학과 학생(38.39%)의 경우가 자퇴로 인한 중도탈락이 많았으며 재수한 학생인 경우는 미등록(37.98%)이 일반학생은 미복학(41.69%)으로 인한 중도탈락 비율이 높았다.

표 4. 사유별 중도탈락자 현황

구분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 체적	계	χ^2	
성 별	남자	323 (27.94)	525 (45.42)	306 (26.47)	2 (0.17)	1156 (58.47)	54.67***
	여자	329 (40.07)	269 (32.76)	209 (25.46)	14 (1.71)	821 (41.53)	
입학 전형	일반 전형	421 (33.10)	482 (37.89)	361 (28.38)	8 (0.63)	1272 (64.34)	13.46**
	특별 전형	231 (32.77)	312 (44.26)	154 (21.84)	8 (1.13)	705 (35.66)	
학 과 계 열	보건계	350 (30.81)	432 (38.03)	346 (30.46)	8 (0.70)	1136 (57.46)	58.51***
	간호계	11 (37.93)	6 (20.69)	12 (41.38)	0 (0.00)	29 (1.47)	
	공업계	74 (30.33)	119 (48.77)	50 (20.49)	1 (0.41)	244 (12.34)	
	사 회 실부계	110 (45.64)	87 (36.10)	39 (16.18)	5 (2.07)	241 (12.19)	
	예·체 능 계	107 (32.72)	150 (45.87)	68 (20.80)	2 (0.61)	327 (16.54)	
	출신 고교	일반계 고교	367 (31.56)	437 (37.58)	349 (30.01)	10 (0.86)	
기타계 고교	285 (35.01)	357 (43.86)	166 (20.39)	6 (0.74)	814 (41.17)		
출신 지역	대구시	501 (32.96)	637 (41.91)	371 (24.41)	11 (0.72)	1520 (76.88)	23.34**
	경북	97 (36.47)	91 (34.21)	76 (28.57)	2 (0.75)	266 (13.45)	
	경남(부 산·울산)	32 (30.77)	40 (38.46)	30 (28.85)	2 (1.92)	104 (5.26)	
	기타지 역	22 (25.29)	26 (29.89)	38 (43.68)	1 (1.15)	87 (4.40)	
	수업 연한	2년제	501 (35.36)	602 (42.48)	300 (21.17)	14 (0.99)	
3년제	151 (26.96)	192 (34.29)	215 (38.39)	2 (0.36)	560 (28.33)		
입학 구분	일반	489 (31.61)	645 (41.69)	400 (25.86)	13 (0.84)	1547 (78.25)	8.39*
	재수	163 (37.91)	149 (34.65)	115 (26.74)	3 (0.70)	430 (21.75)	
	계	652 (32.98)	794 (40.16)	515 (26.05)	16 (0.81)	1977 (100)	

*p<0.05, **p<0.01, ***p<0.001

3.3.1 학업지속자 및 중도탈락자의 기술통계량

대학성적과 입학성적의 분포 경향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중심경향치(measure of central tendency)와 분포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도(variation)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체 자료에 대한 중심경향치과 분산도를 표 5와 같이 얻었다.

전체 대상자의 중심경향 값에 따른 분포의 형태를 보면 학생부 성적과 결석일수는 정적편포(positively skewed distribution)로 낮은 점수를 받은 다수의 학생들이 있으며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드문 분포임을 알 수 있으며, 반대로 중도탈락자의 경우는 대학1-1학기 성적과 학점, 1학년 평균 성적, 그리고 학업지속자의 경우는 대학성적 전체가 부정편포(negatively skewed distribution)로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일부이고 대부분 높은 점수가 집중된 경향임을 나타내었다. 표준편차를 보면 학업지속자 보다 중도탈락자의 성적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비교적 학업지속자의 성적이 비슷한 것으로 보여준다.

표 5. 학업지속 및 중도탈락자의 기술통계량

구분	변인	수	평균값	표준 편차	중앙 값	왜도	첨도	
중 도 탈 락 자	고교 성적	학생부 성적	1,977	44.37	23.14	41.95	0.29	-0.75
		결석 일수		4.23	14.17	0	6.32	52.84
	대 학 성 적	1-1 학기성적		2.15	1.16	2.29	-0.49	-0.52
		1-1 학기학점		14.11	8.15	18.00	-0.74	-1.05
		1-2 학기성적		1.06	1.35	0	0.77	-0.94
		1-2 학기학점		6.82	8.97	0	0.71	-1.32
	1학년 평균성적		2.13	1.13	2.29	-0.52	-0.42	
학 업 지 속 자	고교 성적	학생부 성적	12,233	50.77	21.76	49.04	0.08	-0.79
		결석 일수		1.02	5.72	0	11.06	158.7
	대 학 성 적	1-1 학기성적		3.17	0.73	3.25	-0.64	0.56
		1-1 학기학점		20.03	2.88	20.00	-3.16	16.22
		1-2 학기성적		3.10	0.98	3.30	-1.36	2.16
		1-2 학기학점		19.08	4.88	20.00	-2.89	8.43
	1학년 평균성적		3.20	0.69	3.27	-0.51	0.10	

3.3 학업지속자와 중도탈락자의 기술통계량 분석

3.3.2 중도탈락자의 사유별로 기술통계량

중도탈락자의 사유별 중심경향 값은 표 6과 같이 분포의 형태를 보면 학생부 성적과 결석일수는 정적편포이고 대학성적관련 하위변인들은 부적분포로 전체 대상자와 같은 경향이다. 표준편차는 학사제적의 경우가 다른 사유에 비해서 낮아서 비교적 대학성적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중도탈락자의 사유별 기술통계량

사유	변인	수	평균값	표준편차	중앙값	왜도	첨도		
미등록	고교성적	학생부 성적	652	42.31	23.60	38.78	0.40	-0.69	
		결석일수		6.22	17.44	0	4.90	29.89	
	대학성적	1-1 학기성적		2.04	1.07	2.05	-0.34	-0.42	
		1-1 학기학점		12.80	8.16	16.00	-0.40	-1.44	
		1-2 학기성적		0.93	1.25	0	0.91	-0.62	
		1-2 학기학점		5.82	8.38	0	0.97	-0.82	
		1학년 평균성적		2.02	1.02	2.08	-0.41	-0.27	
		1학년 평균학점		12.80	8.16	16.00	-0.40	-1.44	
	미복학	고교성적	학생부 성적	794	43.32	22.47	41.12	0.30	-0.70
			결석일수		3.75	11.59	0	5.22	34.74
대학성적		1-1 학기성적		2.46	0.93	2.50	-0.49	0.37	
		1-1 학기학점		16.56	6.40	20.00	-1.39	0.79	
		1-2 학기성적		1.21	1.41	0	0.56	-1.27	
		1-2 학기학점		7.87	9.26	0	0.47	-1.61	
		1학년 평균성적		2.43	0.90	2.44	-0.48	0.50	
		1학년 평균학점		16.56	6.40	20.00	-1.39	0.79	
자퇴		고교성적	학생부 성적	515	48.60	23.03	47.25	0.14	-0.82
			결석일수		2.45	12.92	0	10.44	130.1
	대학성적	1-1 학기성적		1.78	1.44	2.19	-0.12	-1.46	
		1-1 학기학점		11.85	9.52	17.00	-0.29	-1.75	
		1-2 학기성적		0.92	1.35	0	1.01	-0.54	
		1-2 학기학점		6.23	9.03	0	0.85	-1.15	
		1학년 평균성적		1.76	1.41	2.18	-0.12	-1.44	
		1학년 평균학점		11.85	9.52	17.00	-0.29	-1.75	

사유	변인	수	평균값	표준편차	중앙값	왜도	첨도	
학사제적	고교성적	학생부 성적	16	44.92	25.41	37.59	0.88	-0.15
		결석일수		4.00	11.37	0	3.81	14.84
	대학성적	1-1 학기성적		2.77	0.78	2.54	0.10	-0.86
		1-1 학기학점		18.81	2.37	20.00	-0.67	-0.95
		1-2 학기성적		2.40	0.89	2.13	0.33	-1.00
		1-2 학기학점		14.38	6.61	17.00	-0.99	-0.39
		1학년 평균성적		2.69	0.69	2.60	0.20	-1.00
		1학년 평균학점		14.38	6.61	17.00	-0.99	-0.39

3.4 중도탈락의 요인 분석

3.4.1 고등학교 성적을 변인으로 한 경우

고등학교 성적 항목이 대학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출신 고등학교의 성적인 학생부 성적과 결석일수를 변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가 표 7과 같다.

고등학교 성적 중에서 학생부성적($\chi^2 = 96.90, p < 0.001$)과 결석일수($\chi^2 = 140.15, p < 0.001$) 모두가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성적과 결석일수가 중도탈락에 미치는 정도는 학생부성적이 낮을수록, 결석일수가 많을수록 중도탈락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치는 정도는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표 7. 고교성적 변인에 대한 중도탈락의 회귀분석

변인	B (Estimate)	χ^2	β (Std. Estimate)
상수	-1.3506		
학생부성적	-0.0113	96.8954***	-0.1377
결석일수	0.0330	140.1525***	0.1382

*p<0.05, **p<0.01, ***p<0.001

3.4.2 대학성적을 변인으로 한 경우

대학성적을 변인으로 하여 중도탈락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대학성적 중에서 요인 하위 변인인 1-1학기 성적 및 학점, 1-2학기성적 및 학점, 1학년전체성적의 모든 항목($p < 0.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학년1학기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성적이 낮을수록 중도탈락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고, 1학년 전체 성적이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다음이 1-2학기학점, 1-1학기 성적, 1-2학기성적, 그리고 1-1학기 학점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대학성적 변인에 대한 중도탈락의 회귀분석

변 인	B (Estimate)	χ^2	β (Std. Estimate)
상 수	2.3705		
1-1학기성적	0.6503	22.2679***	0.3145
1-2학기성적	-0.3293	25.0727***	-0.2285
1학년 전체 성적	-0.9480	39.5485***	-0.4447
1-1학기 취득 학점	-0.0654	66.8838***	-0.1635
1-2학기 취득 학점	-0.1030	118.1702***	-0.4001

* $p < 0.05$, ** $p < 0.01$, *** $p < 0.001$

3.4.3 일반특성을 변인으로 한 경우

일반특성 항목들을 기준으로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모든 항목(입학구분($p < 0.01$), 나머지 항목은 $p < 0.001$)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업년한($\chi^2 = 133.87$, $p < 0.001$)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이 성별($\chi^2 = 136.87$, $p < 0.001$)이 미치며 나머지 항목들은 영향의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일반항목에 대한 중도탈락의 회귀분석

변 인	B (Estimate)	χ^2	β (Std. Estimate)
상 수	0.0441		
성 별	-0.0745	136.8667***	-0.1627
입학전형	-0.2431	12.1340***	-0.0613
학과계열	0.0864	21.2285***	0.0649
출신고교계열	0.3922	31.0790***	0.0983
출신지역	-0.1326	16.1562***	-0.0633
수업년한	-0.7305	133.8685***	-0.2011
입학구분	0.0400	33.4886**	0.0764

* $p < 0.05$, ** $p < 0.01$, *** $p < 0.001$

I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대한 현황과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서 D대학의 2001년부터 2005년에 입학한 학생 15,838명 중에서 정원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을 제외한 14,2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관성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 14,21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도탈락률은 13.9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보다, 기타계열의 고교 출신자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중도탈락률이 높게 나타났다.

3. 대구시 지역 출신자, 2년제 학생, 재수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중도탈락률이 높았으며 특히 예.체능계열의 학과의 중도탈락률(29.14%)이 상대적으로 다음 계열 학과 보다 높게 나타났다.

4. 전체적으로 미복학(40.16%)으로 인한 중도탈락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등록(32.98%), 자퇴(26.05%), 학사제적(0.81%)으로 인한 중도탈락 순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중심경향 값에 따른 분포의 형태를 보면 학생부 성적과 결석일수는 정적편포이며 대학 성적은 부정적편포로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일부이고 대부분 높은 점수가 집중된 경향임을 나타내었다. 표준편차를 보면 학업지속자 보다 중도탈락자의 성적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비교적 학업지속자의 성적이 비슷한 것으로 보여준다.

다음으로 중도탈락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고등학교 성적 중에서 학생부성적과 결석일수모두가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생부성적과 결석일수가 중도탈락에 미치는 정도는 학생부성적이 낮을수록, 결석일수가 많을수록 중도탈락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치는 정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학성적의 하위변인인 1-1학기 성적 및 학점, 1-2학기성적 및 학점, 1학년전체성적의 모든 항목 ($p < 0.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1학년1학기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성적이 낮을수록 중도탈락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고, 1학년 전체 성적이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다음이 1-2학기학점, 1-1학기 성적, 1-2학기성적, 그리고 1-1학기 학점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일반적 특성 항목에서는 수업년한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이 성별이 미치며 나머지 항목들은 영향의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문헌

- [1] 문화일보, “2050년 대입 38만명 미달”, 2005.3.5
- [2] YTN뉴스, “대입 정원 줄고 응시생 늘어”, 2005.7.10
- [3] 최인근, “입학 담당자 직무 향상 과정 자료집, 전문대학 입학전형 중장기 발전향”, 한국전문대학협의회, 2008.
- [4] 박정근, “입학담당자직무향상과정자료집, 지원률제 학률취업률 분석을 통한 입학자원 관리”, 한국전문대학협의회, 2008.
- [5]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6, 2007.
- [6]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2006, 2007년 교육 통계 분석 자료집”, 한국전문대학협의회, 2008
- [7]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2006, 2007년 간추린 교육통계”, 2008.
- [8]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2006년도 교육통계조사 및 자료집 발간 사업 보고서”, 2006.
- [9] 정태화, “전문대학의 입학감소문제와 대응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0.

- [10] 김수연,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요인 분석”, 한국교육, 2006.
- [11] 한국교육개발원, “방송고 재학생 중도탈락 원인 분석 연구”, 2004.
- [12] Tinto, V. “Dropout from higher educ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5, 1975.
- [13] Tinto, V.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14] 김재웅, “미국대학생 중도 탈락: 개인, 사회구조, 대학의 상대적 중요성”, 1991.